

“5·18 진상규명 열쇠 사진첩 1~4권 반드시 찾아야”

옛 전남도청 별관서 보안사 사진첩 설명회 열려

21일 집단발포 사진 안보여... 사라진 네티즌 중요자료 포함 가능성 재판 대응 등 상급자 보고용 추정... 2007년 제출 문서넘버와 연관성 사진·자료수집 지속적 업데이트 돼 17권 이후 추가자료 있을 수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만든 사진첩(17권) 중 감쪽 같이 '사라진 1~4권' <광주일보 2019년 11월28일자 6면>이 5월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 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한신당 박지원·장병안·전정배·최경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지난날 공개됐던 '5·18 사진첩 대국민 설명회'가 3일 광주 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5·18 기념재단 자문위원 이성춘 송원대 교수와 안길정 박사, 5·18기록관 김태중 연구관이 발표자로 나서 보안사 사진첩 제작 배경을 밝혔으며, "사라진 1~4권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성춘 교수 등 3명의 발제자는 지난날 공개된 사진첩 13권(1769매·중복포함)은 5·17권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1~4권이 사라진 사실을 지적하고, 5월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라진 1~4권을 찾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발제자들은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은 5·18에 대한 진상 규명에 자료로 쓰일 수 있고, 국민에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첫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성춘 송원대 교수는 "사진첩은 상급자 보고용으로 만들어져 군 정보활동 및 채증자료·군 작전보고서 작성·각종 여론조성용 및 대외 제공 사진용·5·18관련 재판 등 증거자료 및 각종 상황 대응용으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진첩을 살펴보면 10권의 14쪽 하단 사진설명 부분 중 오타를 수정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전형적으로 군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수정한 방식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10권 50쪽 '살인마 전두환', 12권 13쪽 '두환이 내자식 내나라', 14권 3쪽 '전두환 죽여', 15권 51쪽 '전두

환 죽여라' 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물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판단해보면 전두환에게 까지 보고할 용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라진 1~4권은 주요한 현황 사진첩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보고에 필요한 도표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5권 사진첩 9쪽 아시아자동차 방산물자 납품실적(1977-1982년 실적 내용) 등의 사진이 찍힌 시기 등을 볼 때, 사진 및 자료수집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관리된 듯 하다"며 "17권 이후 추가 사진첩과 자료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안길정 자문위원은 보안사 사진첩의 제작목적과 용도 그리고 제작한 곳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위원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넘버들이 383-1980-XXX으로 돼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의 문서넘버(393-1980-5-17) 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두 문서의 정확한 문서명 등 연관성을 밝혀 내면 1~4권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또 "사진첩 제목이 '증거물 사진'으로 돼 있는데, 이는 5·18을 공동으로 규정하고 연루자를 처벌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9권 36쪽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범죄 개요 현황이 포함돼 있다. 김대중을 내란수괴로 만들기 위한 증거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진설명에 나선 김태중 5·18기록관 연구실장은 "사진 설명이 왜곡된 부분도 다수 발견됐다"며 "시민군을 '폭

도', '극렬분자', '사회혼란 조성자', '난폭자'로 표현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진은 설명을 붙이지 않는 등 철저히 보안사 중심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실장은 "어머니가 도청 앞에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진을 '폭도가 된 아들을 말리는 어머니'라는 식으로 왜곡하는가 하면, 무등고시학원에서 계엄군을 향해 아우하는 학생들을 끌고 내려와 마구 폭행한 사진을 '군경에 투척하는 난폭자'라고 적는 등 진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억지성 사진설명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실장은 이어 "사진첩에 집단발포 시기가인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의 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사진첩 1~4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일부 사진이 누락·은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단골 이발사에 재력가 행세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3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의 단골 이발사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A(5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이발사B(67)씨에게 총 33차례에 걸쳐 현금 247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발사 B씨에게 "급하게 아내의 암 수술비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 치료비가 급하다"는 등의 핑계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로화단 월동 준비 3일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과 도시녹화팀 직원들이 광주역 일대 가로화단에 대해 방지를 위한 비바막이 거적을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주까지 우치로와 하서로를 비롯한 11개소에 월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콘서트 티켓 싸게 판다 속여 15명에 돈만 챙긴 2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3일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챈 A(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부터 한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현금 35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콘서트 티켓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15명이며, 주 연령층은 10~2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층 창틀공사중 떨어진 벽돌에 상가 건물 주인 머리 맞아 숨져

상가건물 3층 창틀 리모델링 벽체 제거 작업 중에 벽돌이 떨어져 1층 상가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45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한 건

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인 A(66)씨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순간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 맞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결과 현장에는 건물 외부 안전시설인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4억5천만원 공천 대가 판단 1심과 같은 징역 1년·집유 2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0)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4억 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닌,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과 김씨는 최초 통

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 전 시장이 보낸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메시지도(윤 시장은 '큰 산'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양숙 여사 사칭범인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기범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 5000만원을 받고,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별 통보 여친 흥기로 위협하다 음주운전까지 '들똥'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흥기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철없는 20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똥나 경찰서행. ○3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1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주택 앞에서 여자친구 B(30)씨가 탄 차를 가로 막은 뒤 흥기로 위협하다가 출

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경찰에 신고를 마친 뒤 차를 타고 자리를 피하자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차를 몰고 뒤따라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술을 마시다가 횡간에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G.O.Auction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박올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공 장** ▶ 광주 서구 매월동 토지 : 1170(353.925평) 건물 : 881.9㎡(266.775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7억2천4백4십만원, 최저가 (70%) 12억7백만원**
- 주 택** ▶ 광주 남구 월산동 295-7번지 토지 : 1655㎡(503.7평) 건물 : 346.69㎡(104.9평) 덕림산방 **감정가 11억7천만원, 최저가 11억7천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70%)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70%)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